

설계경기 | Competition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stitute Center

당선작 / 한상묵 정회원
(주. SD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170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일부 농업지역
주요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120,662.00m ²
건축면적	6,075.75 m ²
연면적	4,727.34m ²
건폐율	5.04%
용적률	11.4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설계담당	김용환, 박효성, 정순원, 정성철, 임건영, 이지은, 최미경

流

흐름에서 공간을 담아낸다.

자연의 흐름과 머무는 공간 안에서

물과 빛이 만나

우리는 희망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희망의 미래성을 제시한다.

배치계획

계획 대지는 차령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주변산세가 주산이 병풍처럼 놓여 있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위치하며, 외수구와 내수구가 있어 풍수지리학 상 명당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 선의 흐름에 순응하고, 계곡을 중심으로 생태축을 형성하여 자연과 건축의 관입과 경계를 형성하면서도 대지 외부의 자연환경과 내부의 자연환경이 한데 어우러져 최적의 생태공간으로서의 연수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동선계획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들에 적합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에 맞는 다양

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시간대별로 동선을 계획하였다.

- 제1산책로 (15분) : 친수활동 및 사계절 생태원, 관찰데크, 전망 및 휴게시설 (옥상조경 + 휴게데크)
- 제2산책로 (30분) : 자연체험 및 옥외활동 공간으로써 전면광장 - 테마휴게공간 - 옥외운동시설 - 극기훈련
- 제3산책로 (1시간) : 산책, 등산로는 기존의 등산로와 연계한 순환산책로 - 정자/데크전망대 - 솔향쉼터 - 산림욕장 등을 계획

차량 동선은 주진입 초입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단지내에서 보행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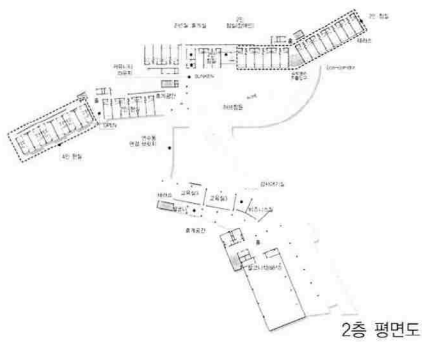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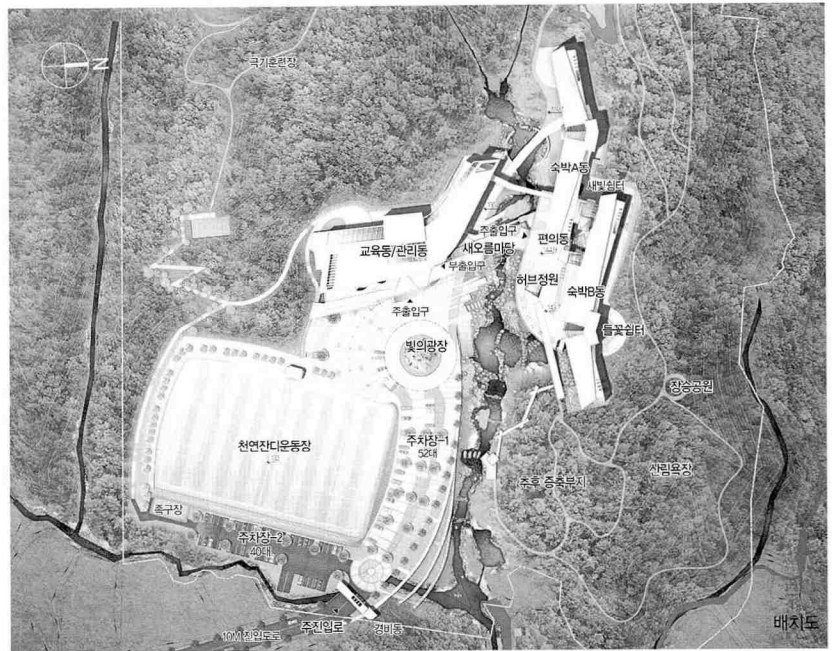
- 동별구성은 교육동 1동, 편의동 1동, 숙박동 2동으로 구성하고 그 4개의 동은 새오름마당 - 데크브릿지, 허브정원등을 통해 각 동으로 진입되도록 유도
- 새오름마당 - 데크브릿지는 동선의 기능 및 휴게와 전망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



- 각 동별 선큰, 휴게홀, 휴게데크, 브릿지, 실내 정원, 허브정원, 벽천 등의 풍부한 휴게요소를 계획하여 연수생들에게 다채로운 공간을 제공
- 단위 평면은 1인실, 2인실, 4인 한실로 구성하고 자연통풍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모든 유니트를 편복도형으로 계획

입면계획

- 자연지형에서 Flat-Skip-Flat 의 개념으로 랜드 스케이프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숲속에서의 나무, 나뭇잎, 지층, 계곡물의 흐름 등의 이미지들을 모티프화하여 수직, 수평 라인을 강조
- 편의동의 저층부 및 숙박동 코어의 투명하고 가벼운 유리매스는 연수원에 있어 '자연의 거울' 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적 요소로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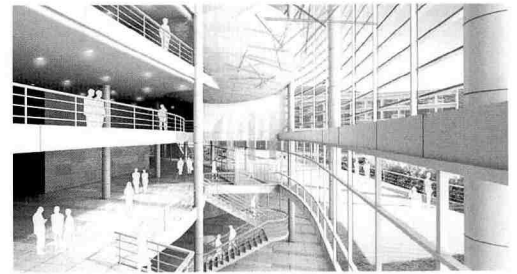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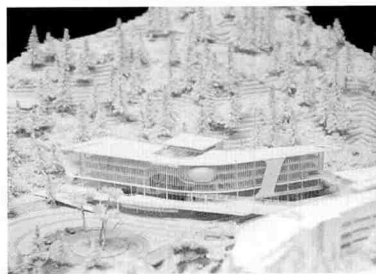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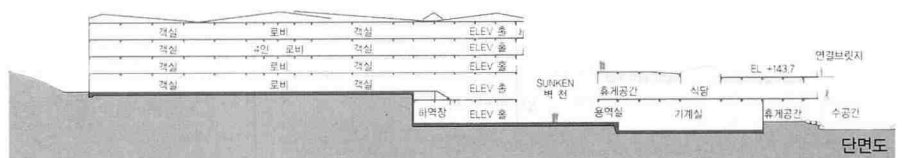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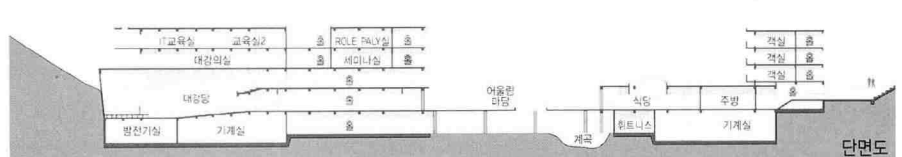
외면도



입면도



단면도



단면도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stitute Center

우수작 / 변 응 정화원
(주. 원도시간축 건축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170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대지면적 120,662m²

건축면적 7,821m²

연 면 적 16,508m²

건 폐 율 6.48%

용 적 륜 13.68%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근로복지공단

설계담당 김형수, 홍승희, 홍상규, 이재현, 김지영, 손수정

계획대상지는 서고동저형의 계곡형 산악지형으로 대지 전면부인 동쪽에서만 진입이 가능하고 주변지형으로 인해 조망이 차단된 계획에 상당히 불리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가용지는 부족한 반면 약 5,000여평의 연면적과 운동장 등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대지의 협소한 국면을 계획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우리의 전략은 한마디로 '건축의 계곡 되기' 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관리동과 숙소동으로 분리 배치된 건물의 매스는 계곡 지형의 사이를 채우는 인공적인 계단광장과 마당, 야외학습장으로 연결된다. 하부는 기계 실이나 대강당, 식당 등의 공유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채웠다. 결국 지형을 따라 매스가 분리되면서도 내부로 연결된 흥미로운 상황

이 연출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하고 의도적으로 자연과 건축의 경계가 모호한 경관을 연출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결코 단순하지 않은 공간구조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수원의 사용자들은 일과시간 동안 숙소와 교육동 사이를 오가면서 때로는 실내로 때로는 외부로, 다양한 루트를 이용하면서 계곡 지형 전체를 공간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조경계획에서도 의도적으로 인공적 조경과 건축, 그리고 자연 상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교육관리동의 경우 의도적으로 낮게 그리고 지형적인 형태로 계획함으로써 건축과 조경의 구분을 흐리게 한다. 경계 흐리기의 의도는 명백하다. 건축과 자연, 그리고 사용자들의 활동을 하나의 통합적인 전체로 엮으려는 것이다.



